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

제네바 (2023년 9월 1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이 9월 4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을 두번째로 공식 방문한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 등과 만날 예정이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9월 12일 오후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서울 현지 시각 기준) 서울의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 출입은 언론인으로 제한한다.

2022년 8월 1일자로 인권이사회 임명을 받아 위임권한 활동을 시작한 살몬 특별보고관은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끝

엘리자베스 살몬(페루)은 2022년 8월 1일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인권이사회의 임명을 받았다. 해당 특별보고관 위임권한을 수행하는 첫 여성으로, 현재 페루 교황청립 가톨릭대 법학 교수로 국제법을 담당하고 있다. 동 대학의 민주주의 인권 연구소장직도 맡고 있다. 세비야 대학(스페인)에서 국제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살몬 교수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콜롬비아 특별평화법원의 자문으로도 참여했다. 페루 법무부와 국방부, 페루 진실화해위원회, 유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자문으로도 활동하였다. 세미나, 국제회의 등 전세계 여러 행사에 연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공법,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 국제인도법 및 전환기 정의에 대한 여러 저서를 집필한 바 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제도**로,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독립전문가가 참여한다. 특별절차는 특정 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 인권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특별절차 전문가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며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유엔 인권 국가별 웹사이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추가 정보 및 언론 문의는 Madoka Saji (+82272535) 또는 hrc-sr-dprk@un.org 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타 유엔 독립전문가 관련 언론사 문의는 아래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Maya Derouaz (maya.derouaz@un.org) 또는 Dharisha Indraguptha
(dharisha.indraguptha@un.org)

유엔 독립 인권 전문가 관련 소식 트위터: [@UN_SPExperts](https://twitter.com/UN_SPExperts)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걱정되나요?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냅시다.
#Standup4humanrights
<http://www.standup4humanrights.org>